

불평등의 잣대, 사회 이동성

미국 세대간 경제이동성 보고서

2013.03.20 | 이은경 | eundust@saesayon.org

1. 사회 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성
2. 미국은 과연 기회의 땅인가
3. 불평등과 밀접한 사회 이동성의 감소
4. 미국 세대간 경제 이동성 보고서
5. 재분배 가로막는 사회 이동성에 대한 환상
: 복지국가의 정치학
6. 고착화되는 한국의 사회계층

새사연 추천보고서는 국내외 우수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1. The Pew Charitable Trusts(201207)Pursuing the American Dream : Economic Mobility Across Generations
2. 알베르토 알레시나, 에드워드 글레이저. (하버드 경제학자가 쓴) 복지국가의 정치학. 전용범 옮김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1. 사회 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성

사회 불평등에 대한 입장은 매우 다양하다. 사회 불평등은 문제인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가? 사회적 개입의 목표와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상이 불평등에 대한 핵심 질문들이며 한 사회가 이 질문들에 어떤 함의를 도출하느냐에 따라 경제사회구조가 결정된다. 불평등은 어쩔 수 없다는 의견에서부터 긍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회효율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결과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지만 기회 불평등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우연적 요소나 개인의 불운이 아닌 개인 노력의 결과로 발생하는 불평등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기회의 평등은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회의 평등 역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기회의 평등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개입해야할 정책 수단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문제들은 논란 중에 있다.

기회의 평등은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 여부로 측정할 수 있다. 경제 이동성, 탈빈곤률 등의 지표에 근거해 개인의 일생에서 다른 계층 및 다른 소득수준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부모와 다른 계층으로 이동하는 세대간 이동성이 있는지 등이 사회적 이동을 측정하는 주된 방식이다. 산업화와 자본주의 성장으로 인한 경제성장은 인류에게 개인 일생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의 이동의 가능성과 부모세대보다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 들어 사회적 이동 가능성이 심각하게 축소되기 시작했다. 많은 연구결과들은 사회적 이동의 사다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중 소득 불평등을 제일 큰 원인으로 제시한다. 미국은 스스로 세계에서 사회 이동성이 가장 크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 사회 이동성은 매우 낮은 독특한 나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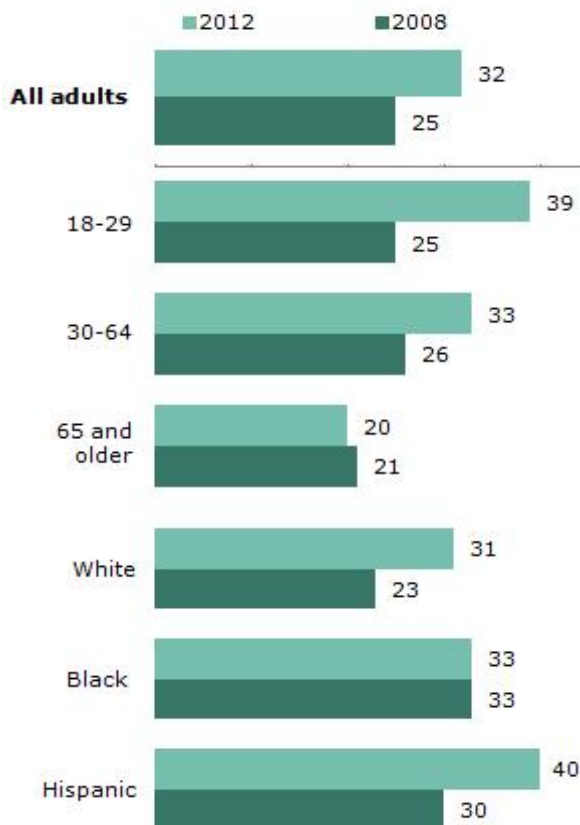
2. 미국은 과연 기회의 땅인가

미국에서 이미 계층간 이동은 어려워지고 있다. 존 랜드리(John T. Landry)는 한때 기회의 땅이었던 미국이 지금은 유럽보다 사회 이동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¹⁾ 그는 1790년 미국 경제에 획기적 생산성 증가가 일어난 이유를 식민통치가 끝나고 계급사회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서 찾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미국은 높은 교육비와 일자리 부족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게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회계층간 이동의 역동성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1) http://blogs.hbr.org/hbr/hbreditors/2013/02/why_social_mobility_is_crucial.html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삶이 더 악화되고 있고 미래 역시 희망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금융위기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퓨리서치센터의 2012년 조사결과는 스스로 하층 계급 또는 중하층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008년 25%에서 2012년 32%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변화폭은 30세 미만 젊은 층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 젊은 세대의 소득과 기회 박탈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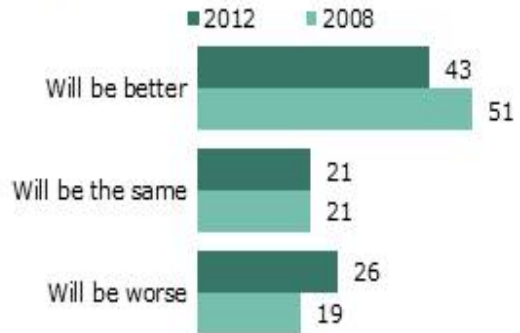
[그림 1] 미국인들이 스스로 하층/중하층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2012년, 2008년



[그림 2] 미래세대가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 2012년, 2008년

Tempered Optimism for the Next Generation

% of middle-class adults expecting their children's standard of living compared with their own at the same age ...



Notes: Based on respondents who say they are middle class, n=1,287. Responses of much/somewhat better and much/somewhat worse are combined. Volunteered responses of "No children" and "Don't know/Refused" responses not shown.

PEW RESEARCH CENTER Q4

출처: <http://www.pewsocialtrends.org/2012/09/10/a-third-of-americans-now-say-they-are-in-the-lower-classes/>

또한 위 설문조사는 미국인들이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메리칸 드림으로 대표되는 미국사회 역동성에 대한 믿음은 오랫동안 미국인들을 지배해왔다. 2005년 뉴욕타임즈의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자녀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비중이 53%, 나빠질 것이라는 비중이 22%였다.²⁾ 이 결과는 2008년 51%, 19%에서 43%와 26%로 변화했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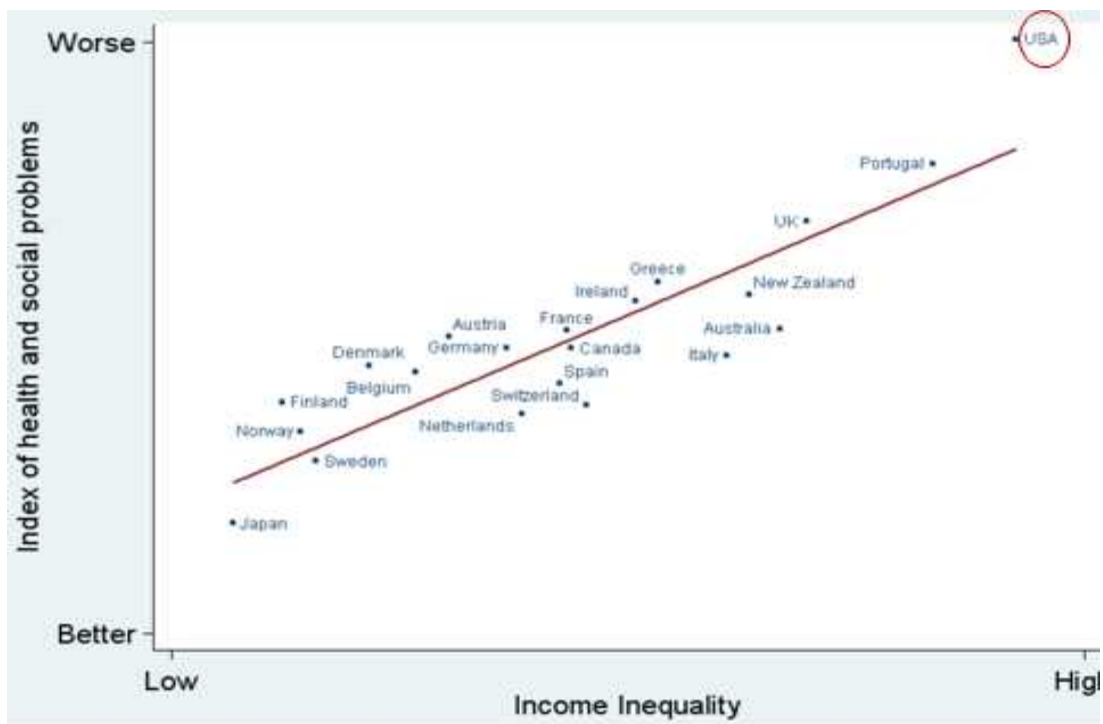
2) <http://www.nytimes.com/pages/national/class/index.html>

이는 근본적으로 소득 불평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전미 고용법 프로젝트의 2010년 1분기~2012년 1분기 노동동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저임금 일자리는 중간 소득과 고소득 일자리에 비해 세 배나 빠르게 증가했다. 저임금 일자리는 경기 침체 기간에 21% 감소했지만 신규 일자리의 58%를 차지했고, 중간 소득 일자리는 경기침체 기간에 60% 감소했지만 경기회복 기간에 22%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고소득 일자리는 경기침체 기간 19% 감소했다가 경기회복 기간에 20% 증가했다.³⁾

3. 불평등과 밀접한 사회 이동성의 감소

영국의 이퀄리티 트러스트(The Equality Trust)는 리처드 윌킨슨과 케이트 피켓에 의해 2009년에 만들어진 사회 형평성을 위한 재단으로 일정한 측정기준에 근거한 다양한 불평등 현상을 연구하고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조직이다.⁴⁾ 이 재단에서는 ‘정신의 수준(The Spirit Level, 2009)’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국의 소득분포와 건강 수준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지표들의 함수관계를 연구했다. 아래 [그림 3]을 보면 불평등 정도와 건강 및 사회적 문제 수준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조사결과 미국은 압도적으로 불평등도와 사회적 문제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 건강과 사회적 문제와 불평등과의 관계



3) http://nelp.3cdn.net/c54d93acdb96420855_03m6i2dq6.pdf

4) <https://www.equalitytrust.org.uk/>

주 : 건강과 사회적 문제의 지표

- Life expectancy기대여명 • Math & Literacy문맹률 • Infant mortality영아사망률
- Homicides자살 • Imprisonment수감률 • Teenage births십대 임신 • Trust신뢰
- Obesity비만 • Mental illness - incl.drug & alcohol addiction정신적문제(알콜과 약물 중독) • Social mobility사회이동성

출처 : Wilkinson & Pickett, The Spirit Level (2009), www.equalitytrust.org.uk

다음 [그림 4]는 불평등도가 높을수록 사회 이동성도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며 여기에서도 미국은 가장 불평등하며 사회 이동성도 가장 낮은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4] 사회 이동성과 불평등의 관계



Source: Wilkinson & Pickett, The Spirit Level (2009), www.equalitytrust.org.uk

4. 미국 세대간 경제 이동성 보고서

이러다보니 불평등과 사회 이동성은 매우 뜨거운 주제가 되고 있다. 현실의 불평등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세습되는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사회 이동성에 대한 대규모 프로젝트 중 하나로 브루킹스 연구소, 헤리티지 재단, 퓨(PEW) 자선기금, 미국 기업 연구소(AEI), 도시 연구소 등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가 참여한 ‘경제 이동성 프로젝트(EMP)’⁵⁾가 있다. ‘성공 혹은 실패 : 미국의 경제

이동성(Getting Ahead or Losing Ground: Economic Mobility in America)' 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2008년부터 경제이동성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와 보고서를 내고 있다. 프로젝트의 결과는 다양한 언론에서 인용되고 있으며 주목할 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 2012년 7월에 발표한 '아메리칸 드림 추적하기: 세대간 경제이동성 보고서(Pursuing the American Dream : Economic Mobility Across Generations)' 는 미국의 세대간 경제 이동성에 대한 구체적 현실을 보여준다.⁶⁾ 이 보고서에서는 1968년부터 2009년까지의 소득역동성패널연구(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PSID)) 데이터에 기초해 경제수준을 소득과 자산을 구분해 5분위로 나누고 세대별로 경제 이동성과 계층 이동성으로 나누어 추적한다.

연구에서는 절대 이동성(Absolute Mobility)과 상대 이동성(relative mobility)을 구분한다. 절대 이동성이란 부모세대에 대비해 자녀세대의 절대 소득과 자산 변동성을 보는 개념이고, 상대 이동성이란 부모세대에 대비해 계층이동을 보는 개념이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의 83%는 부모의 소득보다 최소 천 달러 이상 소득이 많고, 인구의 절반이 부모의 가족보다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 절대 이동성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부모와의 계층 이동성은 매우 낮다.

미국사회에서 소득 43%의 하위 20%가 그대로 하위소득에 머물러 있고 70%가 중간소득 이하에 고착화되어 있다. 40%의 상위소득 20%가 그대로 머물러 있었고 63%가 중간층 이상 소득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겨우 하위 소득의 4%만이 상위 20%에 새롭게 진입하고 상위소득 20% 중 8%만이 하위 20%로 떨어졌다. 이런 현상은 인종간에 더욱 두드러진다. 백인들의 89%가 부모세대보다 소득이 증가할 동안 흑인들의 66%만이 증가했고 56%의 백인들의 자산이 증가하는 동안 23%의 흑인만이 자산이 증가했다. 53%의 흑인들이 하위 20%에 고착되어 있는 동안 백인들은 33%만 그러했고 백인들의 23%가 중간층에서 떨어지는 동안 흑인들의 56%가 중간층에서 더 떨어졌다. 흑인들이야 말로 사회적 지위가 세습되고 있는 셈이다.([그림 5] 참조)

보고서의 표현에 따르면 “끈질긴 하위계층(stickiness at the ends)” 이다. 절대 소득의 증가가 있었지만 계층이동을 하기에는 부족했으며 “부자 되기 신화(rags to riches)” 는 말 그대로 할리우드의 성공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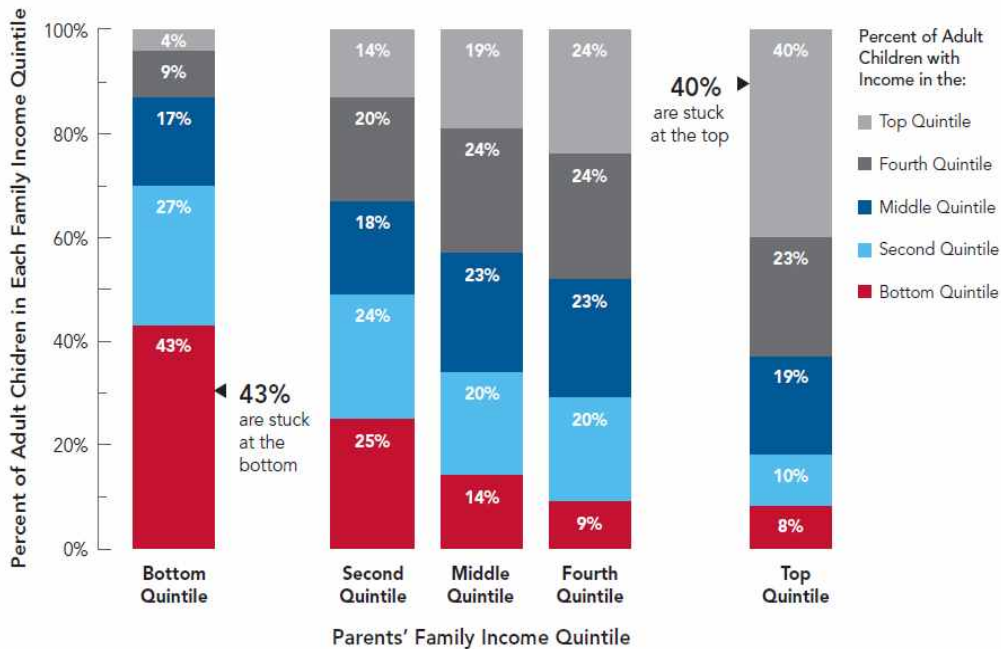
보고서에서는 경제 이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육을 들고 있다. 4년제 대학 졸업은 상층으로의 진입과 하층으로의 하락을 예방하는 효과가 컸다. 소득

5) <http://www.pewstates.org/projects/economic-mobility-project-328061>

6) http://www.pewstates.org/uploadedFiles/PCS_Assets/2012/Pursuing_American_Dream.pdf

에서 47%의 무학위자가 하위층에 고착된 반면, 대학졸업자의 10%만 고정되었다. 대학 졸업은 소득이동의 3배, 자산이동의 4배를 설명한다. 중간소득에서 하위소득으로 떨어지는 비율은 4년제 대학 졸업자가 22%, 비졸업자가 39%이다.

[그림 5] 미국 세대간 경제 이동성 추이



주 : 상위와 하위 계층 고착화 정도가 강하다.

출처 : The Pew Charitable Trusts(2012007)Pursuing the American Dream : Economic Mobility Across Generations

5. 재분배 가로막는 사회 이동성에 대한 환상: 복지국가의 정치학

미국사회는 아메리칸 드림으로 표현되는 대표적 기회의 나라이다.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 라는 유명한 저서에서 기회가 평등한 신세계로 묘사한 이래, 미국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나라라는 믿음이 팽배해 졌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미국은 선진 국가 중 불평등이 가장 심하며 사회 이동성마저 제일 부족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 독특한 점은 미국인들은 본인들의 국가가 매우 역동적인 사회라고 믿고 있다는 점이다.

알레시나와 글레이저가 저술한 「복지국가의 정치학」 에서 저자들은 미국이 유럽보다 훨씬 취약한 복지제도를 갖게 된 원인 중 하나를 "미국은 사회계층 이동이 자유로운 기회의 땅이다"라는 미국인들의 믿음에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현실은 미국과 유

립이 복지제도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래 [표 1]은 이 책에서 논박하고 있는 미국 복지제도 미발달의 원인에 대한 가설과 논박들이다.

[표 1] 미국과 유럽 복지제도 차이 설명 가설과 실제 증거

가설	기전	증거
유럽의 세전소득이 더 불평등 할 것이다	유럽인들은 소득재분배(2차 재분배)를 더 지지할 것이다	실제 미국의 세전소득은 유럽보다 더 불평등 하다.
미국의 사회이동성이 더 높다.	정부 소득 재분배 정책 중요도가 떨어진다.	실제 미국의 사회이동성은 유럽보다 낮다.
저소득 미국인들은 게으르다	미국 소득재분배 정책은 효과가 낮다.	실제 미국 저소득층은 유럽 저소득층보다 더 많거나 적어도 비슷한 시간 노동한다.
유럽의 조세징수, 행정제도가 더 효율적이다	미국 소득재분배 정책은 효과가 낮다.	실제 유럽의 탈세수준이 더 높으며 유럽나라별 행정제도 차이에 비해 정부 소득재분배 제도는 일정수준 이상이다.
유럽의 경제상황이 더 불안정하다	경제적 변동으로 인한 사회 안전망 필요가 더 크다.	GDP성장률과 실업률 측면에서 미국의 불안정성이 훨씬 크다.
미국인들이 더 이기적이다	연대의식이 부족해 복지제도를 지지하지 않는다	실제 미국인들의 민간자선활동 비율이 훨씬 높다.

출처 :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 (하버드 경제학자가 쓴) 복지국가의 정치학. 전용범 옮김. 생각의 힘

저자들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이유들은 미국과 유럽의 소득재분배 제도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오히려 ▲다수대표제, 연방제, 법원과 의회의 견제와 균형 등과 같은 정치적 이유, ▲역사적/인종적/지리적 이유와 ▲이데올로기적 이유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넓은 영토와 인종적 이질성, 전쟁경험이 없이 경제성장으로 바로 이어졌던 경험들은 단결된 저항운동과 정치화를 막았다. 이는 국가형성시기 고착화 된 헌법 등의 보수적 정치제도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했다. 여기에 미국은 사회적 이동성이 높다는 믿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다는 믿음, 낮은 수준의 소득 재분배만을 용인하는 시각으로 이어지는 이데올로기적 원인이 추가된다.

"오랫동안 미국은 자신들의 나라를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해 왔다. 1830년대에 토크 빌은 "미국의 부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에는 가난했다. 지금 여가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젊은 시절에는 일에 몰두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토브빌의 현실 묘사는 어느 정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는 미국인의 자아상을 완벽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론 조사를 보면 미국인들은 (1) 자신들의 풍부한 기회의 땅에 살고 있고, (2) 사회 계급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3) 가난한 사람이 계속해서 가난한 것은 자기 탓일 뿐이라고 믿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본문 중에서

하지만 저자들은 이 믿음은 거짓이라고 단언한다. 실제 미국의 사회 이동성은 19세기 후반에는 유럽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복지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었다. 더구나 유럽의 사회 이동성이 국가별로 차이가 심한데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복지제도로 수렴되었던 것을 설명할 수 없다. 80~90년대에 오면 전체 인구차원의 이동성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가난한 하위 20%가 빈곤을 벗어나는 비율은 미국이 훨씬 낮다. 또한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유럽의 같은 계층에 비해 훨씬 긴 시간 열심히 일하고 있다. 미국의 하위계층은 말 그대로 밧에 빠져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가난은 개인의 계층 때문이며 가난을 벗어날 기회가 있다고 믿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70%) 더불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지제도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다.(이런 믿음을 가진 88%가 현 미국의 복지제도가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대로 유럽은 소득은 운에 의해 결정되며(54%), 가난한 사람은 빈곤의 밧에 걸려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많았다.(60%)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국가에 의한 적극적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는 성향을 지닌다.

이 책은 IT버블이 꺼지고 금융위기, 그로 인한 소득불평등이 심각해지기 이전인 2003년 이전 자료에 기초해 2004년에 쓰여 졌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미국사회의 불평등심화와 계층 이동성 감소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사회재분배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책에서 저자들은 사회이동성에 대한 믿음과 이에 기초한 계층인 사람들에 대한 재분배 반대 이데올로기가 미국 복지제도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런 이데올로기는 실제 현상을 반영하거나 원래 이런 인식이 있어서 복지제도가 미발달한 것이라기보다는 복지제도에 대한 사회적 투쟁에서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단언한다.

6. 고착화되는 한국의 사회계층

국내의 계층 이동성에 관한 연구는 별로 없다. 소득, 건강, 교육 불평등 등 불평등 현상에 대한 연구는 시작단계이긴 하지만 꾸준히 축적되고 있는 반면 계층(경제)이동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세대내 이동-개인 일생을 통한 경제적

이동(탈빈곤률 등)에 대한 연구에 비해 세대간 이동은 더욱 찾기 어렵다. 이는 세대간 이동성을 보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잘 통제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제약과 사회이동에 대한 무관심이 원인이다.

우리사회에는 교육열과 개천용으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 역동성에 대한 믿음이 매우 강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등교육자 비율이 증가했고,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부모세대에 비해 자녀세대는 매우 높은 생활수준 향상을 경험했다. 여기에서 질문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사회 이동성은 어느 수준인가?

앞서 정리한대로 사회 이동성은 세대내 이동성과 세대간 이동성, 절대 이동성과 상대 이동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측정 방식은 소득신고자료나 한국복지패널 등 공식 통계자료 활용이 가능하고 직접 설문조사 등도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된다. 여러 자료를 검토해 보면 한국 사회 세대내 이동성은 2000년대 들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로 2005년과 2009년의 소득 이동성을 조사한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4년간에 걸친 종합적인 변화를 셔록스(Shorrocks)의 소득이동성지수⁷⁾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중간소득계층에서의 소득 이동성이 가장 크고, 하위소득계층에서의 소득 이동성이 가장 낮았으며 전체적인 불평등도의 증가와 이동성의 감소가 관찰된다고 한다. 아래 [그림 6]은 경직성지수인 Theil지수, MLD지수와 Gini계수를 이용해 소득이동지수(소득경직성)를 표현한 것이다. 중간층의 소득경직성은 낮고 하위층의 경직성은 높았으며 지니계수 기준 경직성도 낮아 중간층의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간을 길게 설정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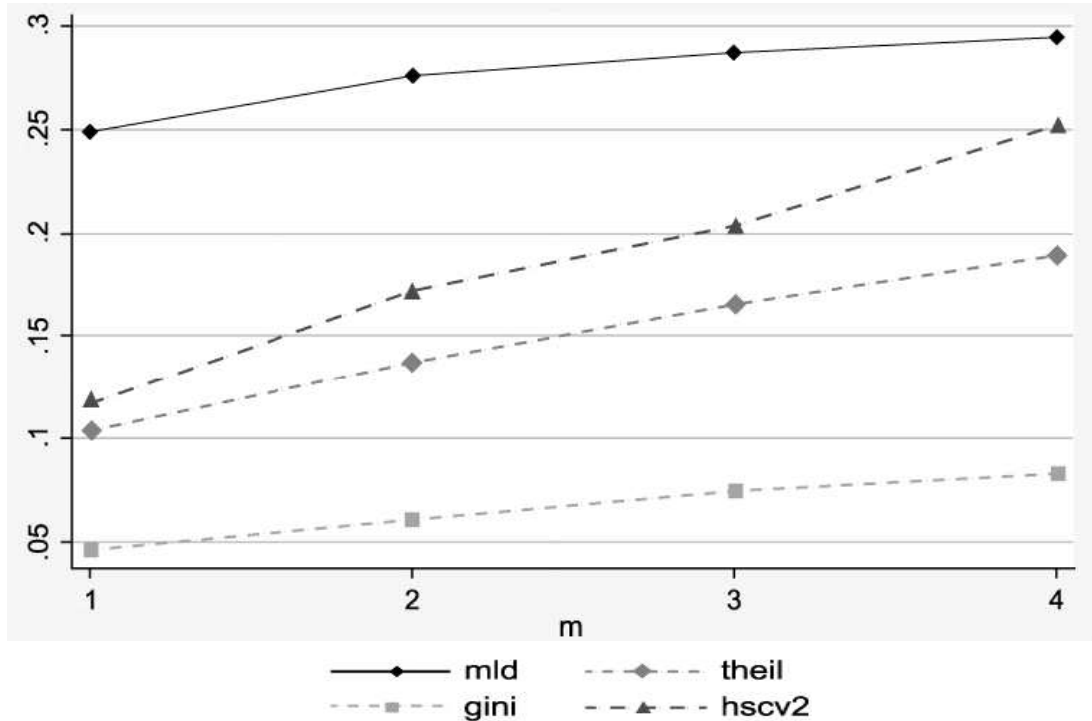
소득 이동성을 이행행렬로 본 결과도 유사하다. 05-09년 사이 동일한 소득분위에 머물러 있는 비율은 소득5분위와(79.9%), 1분위가(73.0%) 높고 소득 2분위와 3분위는 54.5%와 54.9%에 불과하였다. 즉 상위와 하위의 고착성이 강하고 중간층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고정비율 79.9%, 상방이동 21.2%, 하방이동 21.5%였다. 이상의 결과는 상위와 하위는 고정되어 있는 반면 중위층의 이동성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하방 이동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대간 이동성을 추적하기는 더욱 어렵다.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국노동패널 1~12차 자료를 이용해 한국의 출생코호트별 아버지와 자녀의 계급 이동성을 분석한 자료를 소개한다.⁸⁾ 연구에서는 자료가 있는 1931년 이후 출생세대별로 계층

7) 셔록스(Shorrocks)의 소득이동지수는 장기에 걸친 소득의 균등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이며, 장기간에 걸친 평균적인 불평등도와 가중평균한 특정시점의 불평등도를 비교하여 소득이동성의 정도를 측정하게 된다. 셔록스의 소득이동성지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우면 이동성이 작고, 1에 가까우면 이동성이 크다.

을 7가지로 분류하여 아버지에 비해 자녀의 계층이 상향된 비율을 조사하였다.

[그림 6] 소득분위별 소득이동 경직성의 비교



주 M은 시간간격 : 일반적으로 시간 간격이 길어질수록 불평등도는 감소함

Theil지수 : 경직성 지수 중 중계층의 소득변화에 민감한 지수

MLD지수 : 경직성 지수 중 저소득층의 소득변화에 민감한 지수

지니지수 : 불평등 지수, 중간소득계층의 소득변화를 잘 반영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2013

아래 [그림 7]을 보면 한국전쟁 이전 출생한 집단의 계층이동성이 가장 높았으며(일제시대 후반 출생 집단으로 현 66~77세/60~70년대 경제활동 시작) 이후 60년대까지는 계층 이동성이 매우 낮았다.(현재 54~67세/70~80년대 경제활동 시작) 이후 60년대 후반 출생 집단의 계층(현 34~53세/80년대 후반~2000년대 경제활동 시작) 이동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다가 80년 이후 출생 집단(현 33세 이후/2000년대 후반 경제활동 시작)의 계층이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그 변수로 교육(공교육의 상향평준화를 통한 균등화 정책-중학교 평준화, 과외금지 등)정책의 변화만을 조사하였으나 한국 사회 계층이동성이 산업화시기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2000년대 이후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그림 7] 한국의 출생코호트별 계층이동성(오즈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주 1 : 코호트별 출생연도 : 1)16~20/2)21~25/3)26~30/4)31~35/5)36~40/6)41~45/7)46~50/8)51~55/9)56~60/10)61~65/11)66~70/12)71~75/13)76~80/14)81~85/15)86~90/16)91~95

주 2 : 계급의 구분(7분류) : 전문가, 30인 이상 고용주/준전문가, 공무원, 중간관리자/화이트칼라/영세자영업자/농부/숙련근로자/미숙련근로자, 농업근로자

주 3 : 오즈비가 높을수록 계층고착화 정도가 크며 오즈비가 낮을수록 계층이동성이 큼.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특히 한국의 경우는 산업발전 초기에는 교육이 사회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높았으나 90년대 후반 들어 사교육과 학교서열 열풍이 불면서 교육에 의한 사회이동성 효과가 감소하고 오히려 불평등을 촉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부모의 부와 사회적 지위가 교육을 통해 세습되는 구조와 노동시장의 이중화로 인한 경제적 소외현상이 맞물리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더 나은 삶이 쉽게 가능하지 않다는 회의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매우 취약한 사회안전망은 자칫 실수하면 사회낙오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두려움의 원인이 된다. 한국사회 이동성이 긍정적인 활력사회에서 계층고착화를 넘어 하향이동성을 걱정하는 사회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진단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은 이런 사례를 보여주는 대표적 국가이다. 미국의 지식인들과 싱크탱크에서 사회이동성 문제를 천착하고 있는 것도 미국사회 가장 큰 장점인 아메리칸 드림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며, 불안정이 심해지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삶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미국과 같은 거대국가가 아니다. 한국사회 이동성에 대한 연구와 적극적 대응이 시급하다. 📌

2013년 새사연의 ‘추천 보고서’ 목록

2013년 3월 20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추천 보고서	2/18	헬리콥터 머니: 선진국 양적완화정책 평가	여경훈
추천 보고서	2/21	성장과 분배의 관계 다시 생각하기	김병권
추천 보고서	2/27	국제 비교로 한국사회 불평등 들여다보기	이은경
추천 보고서	3/4	소득불평등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여경훈
추천 보고서	3/5	여성고용문제 해결로 경제회복 앞당기자	최정은
추천 보고서	3/6	최저임금 인상은 왜 고용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김수현
추천 보고서	3/14	위기 이후 금융 세계화의 전망	김병권